

# 숲은 가장 큰 교실

## 한신초등학교

일 시 - 2007년 7월 30일(월)~2007년 8월 1일(수)  
 장 소 - 경기도 산음휴양림 청소년 숲속 수련관  
**활동목표** - 푸른숲선도원 학생들에게 자연 관찰, 자연  
 놀이, 숲체험, 숲가꾸기 등의 다양한 숲에서의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숲체험활동을  
 통하여 숲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숲을 가  
 꾸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기르코자 함  
**활동내용** - 숲해설 및 자연놀이, 별자리 관찰, 수서곤충  
 관찰 나무 목걸이 만들기 숲속 골든벨 소경문 작성

목성을 보았다는 말에 마음은 벌써 밤하늘을 가득 수놓았을 별의 강, 은하수까지 가 있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의 2박 3일 동안 서울 한신초등학교 스물아홉 명의 5학년 학생들은 사방이 온통 나무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가장 큰 교실에서 여름휴가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었다.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와 불빛을 보고 찾아든 나방의 날갯짓 소리까지 아니 어찌면 별뿔별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대한 자연의 품에서 아이들은 또 한뼘 자라고 있었다.

### 1. 숲의 일부분이 되어 - 한신초등학교 푸른숲선도원

“제가 개미가 되어 진딧물을 보호하다보니까 막 책임감 같은 것도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켜준 개미에게 진딧물이 먹이를 준다고 하니가 공생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 먹고 사는 게 힘들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헤헤.”

무당벌레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둘러싼 작은 원 안에 개미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진딧물 역할을 맡은 아이들과 한 조각 되어 무당벌레가 던진 공을 너무나도 열심히, 온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공이 진딧물에게 스치기만 해도 진딧물은 죽기 때문이다.

“놀이가 그냥 놀이로 끝나면 안 되죠. 놀이와 체험을 통해 숲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연스럽게 놀이와 지식과 실천이 연계되게, 그래서 생태계와 숲과 자연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프로그램을 마치자마자 바로 서로의 감상을 교환하는 발표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놀이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으며, 그럼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다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이 나와 또 그렇게 서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히히히.” “아하하하.” “푸히히.”

숲속 연극제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친구들의 다른 모습이 마냥 재밌





는 모양이다. 키 큰 친구가 아빠 역을 맡아 키 작은 친구들에게 훈계하고 운전하는 시늉을 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모둠별로 연극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숲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와~~. 이 친구는 자신의 얼굴을 그렸대요. 어때요? 닳았어요?”  
“와하. 네!!!”

나뭇잎에 아크릴 물감을 묻혀 흰 티셔츠에 저마다의 모양을 만들어 찍을 때도, 우산살에 열심히 실을 감아 거미집을 만들 때도, 소나무 사랑 일기를 쓸 때도, 등화채집을 할 때도, 나무 목걸이를 만들 때도, 숲속 골든벨을 할 때도 모두 아이들은 너무나 열심히었고 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숲 속에서 숲의 일부가 되어 생활해본 귀중한 체험들... 아이들은 오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새기고 있었다.

## 2. 숲에 대해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와 체험이죠

- 장은영 선생님 인터뷰

“교정을 둘러보다보니까 어떤 나무의 잎이 하트모양으로 너무 예쁜 거예요. 가을이 되어 그 나무 밑에 갔더니 향도 너무 달콤했어요. 이 나무가 뭘까 계속 궁금해 하던 차에 광릉숲에 갔더니 계수나무라는 거 있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계수나무를 안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이 나무에 대해 설명해주었다는 그녀는 그렇게 식물도감도 사게 되고 공부도 더 하게 되면서 숲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방향으로 교육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합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사람도 자연의 일 부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러면 벌레도 더 이상 징그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나아가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을,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틈이 나면 아이들과 학교 뒤 숲에 가서 관찰수업을 한다는 그녀는 그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손으로 만지고, 직접 만들고 하면 아이들은 체험이 끝난 다음에도 그 물건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때의 경험과 체험, 지식들을 떠올리죠. 그래야 오래 그리고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장은영 선생님〉

이번 2박 3일 동안의 일정도 그래서 대부분이 다 즐겁게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을 짜기 위해 네 명의 선생님과 함께 사전에 여러 번 만나 계획을 짰다는 그녀의 열정 때문인지 이번엔 참가한 5학년 아이들은 정말 모든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었다.

“한번 해보고 좋은 줄 아니까 숲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숲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하죠. 그렇게 또 숲을 보호하고자하는 마음도 갖더라구요.”

이는 만큼 보이고, 보고 느끼는 만큼 남는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그래서 푸른숲선도원활동 같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교실 안에서 칠판에 써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거나 말로 배우는 것은 금방 잊혀지지만 이런 체험 학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 기억 속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숲 그 자체죠. 변화무쌍하고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알려고 하고 또 알아간다는 그녀는 숲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숲에서 받는 ‘느낌’ 을 꼽았다. 그녀 자신이 그랬듯, 숲에서 놀아본 아이들은 커서도 숲을 그리워한다는 것이다.

“이런 숲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계속 활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올핸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숲 체험을 하게 해 주고 싶은 욕심이에요. 아이들이 주도할 수 있는 숲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물어 가는 오후의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는 그녀가 또 하나의 거대한 숲으로 보였다.

<글·사진 / 고선희(푸른숲선도원 전문기자)>



### 8월 활동지원학교

학교명	일시	장소	내용
서동초등학교	2007.08.07	금정산 벼어서 경외	금정산 숲 보호 및 숲가꾸기 활동, 숲생태 교육 및 숲체험 활동
보인중학교	2007.08.17	경북 월악산 국립공원	숲해설가와 함께 숲탐방 및 생태체험교육, 식생 및 계곡 수질 조사, 동굴 탐사
세지중학교	2007.08.18	완도 수목원	숲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현장체험을 통해 자연보호 및 숲가꾸기 활동의 중요성 인식
풍광초등학교	2007.08.22	청원 미동산 국립수목원 및 잠사 박물관	숲의 가치 공부, 나무와 함께 사는 작은 곤충 탐구, 신나는 자연 놀이
각화초등학교	2007.08.25	무등산 군왕봉 숲	숲의 환경적·생태적·경제적 기능 탐구, 도시숲 가꾸기, 학교숲 가꾸기 알아보기